

An Empirical Study of Age Effect on Awareness for Korean Unification: evidence from 2020 Seoul, Incheon, Gyeonggi survey data^{*}

Kyungbong Woo^{}**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f Korean Unification among age groups based on survey data. It is verified by statistical model analyses that the ratio of agreement for Korean Unification increases with the age growth, but after the highest peak at the age group of 44~53 years, the ratio of agreement gradually decreases. The statistical model shows that the age group of 44~53 years old has 2.5 times higher odds of agreement than the age group of 24~33 years old and the odds of female to male is 0.56. Meanwhile, the ratio of increase in the agreement, aligned with the increasing age groups, shows 4.3 times higher for males than females.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agreement in the overall age groups is estimated to be contributed the most by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agreement for Korean Unification between the young male generation (in their 20s and 30s) and the middle-aged male generation (in their 40s and 50s).

Keywords

Korean Unification, age effect, 20s male, gender gap, economic polariz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20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Research Grants.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Email: wkb@mail.knou.ac.kr.

통일 의식에 대한 연령 효과 분석: 수도권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

요 약

본 논문은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을 바탕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시민의 통일 의식에 연령대별 차이의 양태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연령과 양의 선형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통일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44세~53세 층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모형 분석에서 44~53세층은 참조집단인 24~33세층에 비해 승산이 2.5배 이상 높았으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산은 0.56배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통일 찬성 비율 평균값의 추세선 기울기 기준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통일 찬성 비율 증가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년층(2030)과 중년층(4050) 간의 현저한 통일 찬성 비율의 차이가 수도권 전체 연령대의 통일 찬성 비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통일 의식, 연령효과, 20대 남성, 성별 격차, 경제양극화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메일: wkb@mail.knou.ac.kr.

I. 서론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신 세대에 대한 기성 세대의 당혹감 표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세대 간 갈등 양상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외(2015)는 한국 사회의 세대간 갈등에 대해, ‘절대빈곤에서 출발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체험한 장년세대와 상대적 풍요 속에서 자랐으나 저성장 국면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청년세대가 갖는 시각의 차이는 그들이 경험한 정치사회 문화적 영역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와 함께 세대 간 인식의 골을 깊고 넓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20대를 주축으로 하는 청년 세대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층과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인다. 임경훈(2019)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59%로 50대의 79% 및 전체 67%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경봉(2021)에 의하면, 30대의 ‘통일 필요’ 응답 비율 저하 추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선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태도에 대해 ‘보수화된 20대’ 논쟁이 일고 있으며, 이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양극화를 배경으로 고령층의 보수화가 심화하는 것에 관한 연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복잡화 하는 한국 사회에 있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식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바라보는 것은 최근의 변화 양상과 복잡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시민의 통일 의식과 관련해 기존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령이 증가하면 남북통일에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증가한다’

는 명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한국 시민의 통일 의식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세대 간 갈등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대부분 연령을 선형 관계 변수로 해석하여 분석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통일을 비롯한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2절에서는 기존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데이터를 검토한다. 4절에서는 분석결과 및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5절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기존연구 검토

한국 시민의 통일의식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통일의식에 긍정적인(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그리고 세대 비교 등 사회 집단 간 통일 의식의 차이에 주목한 비교분석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로는 이성우(2013), 이내영(2014), 백대현·이재완(2015), 장민수·김준석(2015), 정동준(2016; 2017)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 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으며(이성우, 2013),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대현·이재완, 2015; 정동준, 2017). 지지 정당에 대한 당파성 역시 통일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정동준, 2016),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태도가 상충적(ambivalent)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장민수·김준석, 2015).

이내영(2014)은 한국 국민의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내영(2014)은 인구사회변수와 정치성향 변수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비교하는 다수의 기존연구들이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민족정체성 모델과 기대이익 모델의 변수들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한편, 통일의식 분석에 있어 특정 세대 등의 집단 간 통일 의식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연구로는 김병조(2009; 2015), 변중현(2012), 정은미(2013), 김희정·김선(2018), 구본상·최준영(2019)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집단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에 비해 통일의 결과 발생할 편익에 대한 기대감 및 통일 이후의 남북한 통합 사회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으며(정은미, 2013), 한국 시민 중 민주화에 대한 선호가 강한 집단은 통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주, 2009). 지역에 초점을 맞춘 분석에서는, 호남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에 대한 지향이 강하여 통일 준비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대구-경북권은 2018년 진보 정부 출범 이후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통일 준비에 대해 타 지역과 크게 차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상·최준영, 2019).

연령 및 세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20대와 대학생층은 북한에 대해 관심과 이해 수준이 낮고, 남북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으며(변중현, 201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희정·김선, 2018). 김병조(2015)는 세대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

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식과 관련해 ‘체제경쟁세대’(1941 ~ 1960년 출생), ‘민주민족통일세대’(1961 ~ 1970년 출생), ‘탈냉전세대’(1971 ~ 1980년 출생), ‘신자유주의통일세대’(1981 ~ 1995년 출생)의 총 4개의 세대로 구분하였다. 김병조(2015)에 의하면 추상적인 통일 인식에서는 세대별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구체적인 수준의 통일인식에서는 세대내 분화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내영·정한울(2013)은 통일 의식 분석 문헌은 아니지만 한국 시민의 대선 지지, 정당 지지,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 등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의 나이(age)효과를 연령(aging)효과, 기간(period)효과, 세대(cohort)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내영·정한울(2013)에 따르면 44세 이하에서는 연령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45세 이상 코호트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지 후보, 새누리당 지지 여부, 주관적 자기이념평가의 세 종속 변수 각각에 대해 모두 일관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한다. 즉, 45세부터 연령(aging)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시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 간의 통일의식 차이를 비교분석 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심화에 공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연령과 통일의식을 선형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는 세대(generation) 연구에 있어 가령(加齡, aging)효과¹⁾ 이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령효과 이론은 연령이 증가하면 사회 구성원의 보수성이 심화된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연령과 사회 의식 사이에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령효과는 aging effect의 번역어로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대연구의 기존 이론을 반영해 age effect를 나이효과, aging effect를 연령효과로 번역하여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효과(age effect)의 개념만을 사용하며 가령효과(aging effect)는 별도의 (하부) 개념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즉, 문자 그대로 연령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 양상을 연령효과(age effect)로 해석하며 period effect는 시대효과, cohort effect는 코호트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 의식과 연령 사이에 선형 또는 일방향성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사전에 이러한 특정 방향성을 염두에 둔 관계 설정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최근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표본추출 규모는 전국 1,200명 정도로 세밀한 연령대별 차이 비교가 가능한지에 의문이 남는다.²⁾ 이상적인 것은 대규모 샘플에 대한 동일한 설문 방식 지속을 통한 종단면 분석이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기존 설문과 비교해 현저하게 많은 수의 유효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의 횡단면 분석은 여전히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의식이 단순 증가 또는 감소 관계가 있는지, 혹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논점으로 삼고자 한다. 통일은 사회 전체의 각 영역에 대한 영향을

2) 주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표본규모는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연구원(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KEPS패널조사(2012)’ 전국 1,291명. 백재현·이재완(2015)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전국 2,537명. 장민수·김준석(2015) ‘한국정치연구소 이념조사 2012’ 전국 1,000명, 국회의원 224명. 구본상·최준영(2019)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8’ 전국 1,002명. 변중현(2012) ‘홍사단 대학생 통일의식조사 2010’ 수도권 4년제 대학생 1,119명. 그 외의 선행연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전국 1,200명.

고려해야 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이지만, 의사결정의 최종단계는 결국 찬성, 반대로 수렴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일에 대한 의견을 단순화하여 사회경제 주체의 의식을 관찰하는 것 역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의미 있는 접근이라 생각된다. 논점 규명을 위해 본 연구는 표본추출 지역을 연령대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표본 수를 2천명 이상 추출하여, 유효 표본 수를 최대한 늘리는 분석 전략을 취하였다.

III. 연구 방법과 자료

1. 연구 가설

2절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외에 본 연구의 논점에 참고된 문헌은 고령층의 보수화에 관한 연구이다. 고령층의 보수화가 심화하는 현상은 최근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으며, 고령층이 저소득 계층의 상당 비율을 점하고 있는 점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원택, 2013; 강원택·성예진, 2018). 또한 최슬기 외(2019)에 의하면 1964년생 이전 세대는 보수성향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성이 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1970~74년생과 1965~69년생이 가장 비보수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경봉(2020)에 의하면 통일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보수성향 판단 승산(odds)의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최근 한국 사회의 고령층 보수화 등을 고려하면 통일의식에 대한 연령 효과는 젊은 층과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낮고 40, 5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의 설문 중 통일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이항로짓(binary logit) 모형으로 분석하여 연령대별 계수를 추출한 것이다(우경봉, 2022).³⁾

표 1. 통일 필요 응답에 관한 이항로짓모형의 연령대별 계수 추이 2007-202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0대	0.559	0.707	0.496	0.751	0.679	0.383	0.304	0.053	0.602	-0.237	-0.001	-0.228	-0.239	0.379
40대	0.633	0.952	1.030	1.248	1.075	0.954	0.701	0.302	1.516	0.616	0.636	0.246	0.367	1.037
50대	0.849	1.177	1.235	1.359	1.279	0.983	0.792	0.845	2.117	0.945	0.819	0.907	0.772	1.178
60대	1.550	-	-	-	1.604	0.952	1.157	1.373	2.458	1.664	1.167	0.529	0.991	1.148

- 주1) 밑줄이 없는 값은 (1% 수준 포함)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충족을 의미함.
- 주2) 밑줄이 있는 값 중 2012년 30대는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충족하며, 나머지 밑줄이 있는 값들은 10% 수준을 충족하지 못함.
- 주3) 2008~2010년 설문조사에서는 20대~50대 이상으로 연령이 구분되었음.
- 주4) 2015~2020년은 표본에 70~74세가 추가되어, 60세 이상에 포함되었음.

종속변수는 해당 문항의 선택지 3번을 1/2하여 각각 필요와 필요 없음에 포함시킨 값이며, 독립변수는 설문에 포함된 기초 인구통계항목으로 연령대별 계수 추출에 적용된 이항로짓분석모형은 다음 식 (1)과 같다.⁴⁾

$$\begin{aligned}
 \text{통일필요, 불필요}_i = & b_0 + b_1 30\text{대}_i + b_2 40\text{대}_i + b_3 50\text{대}_i + b_4 60\text{대}_i \\
 & + b_5 \text{여성}_i + b_6 \text{결혼상태}_i + b_7 \text{종교유무}_i + b_8 \text{거주지역}_i \\
 & + b_9 \text{교육수준}_i + b_{10} \text{월소득수준}_i + b_{11} \text{직업}_i + \varepsilon_i \quad (1)
 \end{aligned}$$

- 3) 해당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연도에 따라 연령, 지역, 직업 등 조사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해당 연도의 설문 방식을 반영하되 통계모형의 틀은 유지하여 연령대별 계수를 추정하였다.

연령대별 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30대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30대의 통일 필요 판단 비율이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가장 낮은 연령층인 20대와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논점과 관련해 2018년부터 50대와 60대 계수의 크기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에는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층의 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020년 통일 찬성 비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상승하다가 일정 연령대 이후 그 추세가 현저히 둔화하거나 찬성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

2. 데이터 개관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6일에서 20일까지 2주간 실시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자료이다.⁵⁾ 설문 조사는 총 2,300명 표본 추출을 목표로 하여, 2020년 3월말 현재 수도권 지역 주민등록 기준 연령대 및 성별 인구 구성비를 기본으로 할당되었다. 논점 분석에는 2,243명의 응답 자료가 사용되었고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2와 같다.⁶⁾

5) 연구자가 설계 및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통계조사 전문기관 (주) 마크로밀엠브레인 이 웹 설문 방식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6) 연령은 만 나이며 평균 43세, 표준편차는 13.4세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 수	구 분(%)
연 령	18, 19세 (2.9%)
	20 ~ 29세 (18.6%)
	30 ~ 39세 (19.5%)
	40 ~ 49세 (22.1%)
	50 ~ 59세 (21.6%)
	60 ~ 69세 (15.3%)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8.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2%)
	300만원 ~ 400만원 미만 (17.7%)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6.0%)
	500만원 ~ 600만원 미만 (15.4%)
	600만원 ~ 700만원 미만 (9.1%)
	700만원 이상 (18.3%)
학 력	초등학교 졸업 (0.1%)
	중학교 졸업 (1.2%)
	고등학교 졸업 (19.9%)
	대학교(2, 3, 4년제) 졸업 (68.3%)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 (10.4%)
성 별	남성(50.3%), 여성(49.7%)
결혼 여부	미혼(40.7%), 기혼(59.3%)
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그 외 종교
	종교 없음
거주지역	서울 (38.0%)
	인천 (11.1%)
	경기 (50.9%)
근무 형태	종업원이 3인 이상 있는 사업주 (3.3%)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 (5.7%)
	정규직 근로자 (51.9%)

변 수	구 분(%)
	비정규직 근로자 (9.5%)
	가사(주부) (11.9%)
	학생 (9.2%)
	휴직 또는 무직 (8.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0.1%)
	자영업 (4.6%)
	판매/서비스직 (4.7%)
	기능/숙련공 (1.3%)
	일반 작업직 (1.7%)
	사무/기술직 (45.0%)
	경영/관리직 (6.1%)
	전문/자유직 (6.9%)
	가정주부 (11.6%)
	학생 (9.2%)
	군인/경찰 (0.1%)
	기타 (2.4%)
	휴직 또는 무직 (6.2%)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통일 의식과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의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통일 의식 설문에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되며, 사회현안 인식 설문에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 및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논점 고찰을 위해 종속변수는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이항 변수로 설정되었으며, 독립변수는 인구통계학 변수 및 사회현안 변수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식을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⁷⁾

7) 설문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항목 이외에 응답자의 정치성향 판단, 최저임금 수준, 중부세 수준, 고용안정, 성소수자 정책 등 8개 영역을 추가로 질문하였으나 본 연구의 논점 외로 판단되어 생략하였다.

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설문 문항	측정
통일	남북 통일에 대해 찬성, 반대로 결정하신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속 변수: 1. 찬성, 2. 반대
연령	연속 및 범주 변수	표 1. 참조
소득	연속변수	
학력	연속변수	
성별	참조집단: 남성	
미혼	참조집단: 결혼한 경험이 있음	
종교	참조집단: 종교 없음	
지역	참조집단: 경기	
근무형태	참조집단: 종업원 3인 이상 사업주	

IV. 자료 분석

1.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종속변수, 응답자의 인구통계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 이항로짓모형 1~3의 분석 결과를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⁸⁾

모형 1은 연령 변수의 형태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을 연속 변수로 설정하고 연령 제곱 변수(Age2)를 추가한 것이다. Age2의 계수가 1%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계수로 추정된 것을 통해 연령 증가에 따른 통일 찬성률이 종(bell) 형태의 곡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10세 단위 연령대로 구분한 것이며, 모형 3은 모형 2와 연령 구분을 달리하여 설정한 모형이다. 모

8) 이하 통계모형에서 SL은 통계적 유의성, SE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SL의 *가 의미하는 통계적 유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0%, **5%, ***1%.

형 3은, 대부분의 조사와 연구에서 사회 통념을 반영하여 연령대 구분을 20~29세 등과 같이 구분하지만, 변화의 양상이 10세 전후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표 4. 통일 찬성-반대에 대한 분석 모형 1~3

변수	모형 1			모형 2: 참조 20-29			모형 3: 참조 24-33			모형 3 odds ratio	
	계수	SL	SE	계수	SL	SE	계수	SL	SE		
상수항	-1.899***		0.467	-0.370		0.450	0.008		0.449	1.008	
연령	Age	0.095***	0.019	18-19	0.260		0.301	18-23	-0.210	0.256	0.811
	Age2	-0.001***	0.000	30-39	0.279*		0.164	34-43	0.352**	0.152	1.422
				40-49	0.960***		0.184	44-53	0.919***	0.173	2.506
				50-59	0.998***		0.196	54-63	0.570***	0.186	1.769
				60-69	0.681***		0.216	64-69	0.275	0.254	1.316
소득	-0.005		-0.333	-0.016		0.026	-0.017		0.026	0.983	
학력	0.039		0.735	0.152*		0.091	0.121		0.091	1.129	
여성	-0.346***		-5.598	-0.587***		0.103	-0.583***		0.103	0.558	
미혼	-0.026		-0.318	-0.040		0.138	-0.108		0.139	0.898	
종교	0.169		3.278	0.283***		0.088	0.288***		0.088	1.334	
서울	-0.031		-0.504	-0.041		0.102	-0.037		0.102	0.964	
인천	-0.136		-1.462	-0.204		0.154	-0.214		0.154	0.807	
사업주	0.163		0.818	0.309		0.337	0.242		0.336	1.274	
정규직	0.226*		1.748	0.421*		0.218	0.371*		0.218	1.449	
비정규직	0.276*		1.806	0.482*		0.257	0.431		0.257	1.539	
주부	-0.011		-0.071	0.013		0.249	-0.009		0.249	0.991	
학생	0.382**		2.105	0.263		0.289	0.273		0.310	1.313	
휴무직	0.127		0.818	0.218		0.259	0.165		0.258	1.179	
표본수	2,243			2,243			2,243				
맥폐든 결정계수	0.051			0.053			0.050				

모형 2,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계수도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대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며, 계수 값이 가장 큰 연령대가 모형 2는 50-59세층, 모형 3은 44-53세층으로 서로 다른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각 연령대 변수에 있어, 40~60대의 각 계수 간 차이 및 표준오차 크기를 고려해볼 때 각 계수가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왈드검정(Wald test)을 적용하여 각 계수간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 때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은 $C_1 = C_2$ 즉,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계수는 서로 같다’이며,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⁹⁾

표 5. 모형 2, 3의 연령 계수에 대한 왈드검정 결과

모형	연령 구분	SL	t	prb
모형2	10, 30	-	-1.619	0.106
	30, 40	**	-2.543	0.011
	40, 50	-	0.647	0.518
	50, 60	-	0.137	0.891
모형3	10, 30	*	-1.952	0.051
	30, 40	***	-3.698	0.000
	40, 50	**	2.190	0.029
	50, 60	-	1.319	0.187

표 5에서 모형 2는 30대와 40대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모형 3은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0대와 30대의 계수가 구분되며, 30대와 40대 및 40대와 50대 계수가 동일하다는 가설을

9) 계수 동일성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은 t분포, F분포, 카이제곱분포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계수를 비교하고 있어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t분포 값을 제시한다.

각각 1%,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 등 현상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 4의 모형 3을 다시 살펴보면, 44~53세 층은 참조집단인 24~33세층과 비교해 승산(odds)이 2.5배 이상 높아 가장 높은 통일 찬성 비율을 보이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산은 0.56배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일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는 약 1.3배 승산이 증가하였다.

표 4 및 표 5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통일에 대한 찬성 비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상승하다가 40, 50대 층에서 가장 높고 그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집된 2,243명의 통일 찬성 비율을 연령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령별 통일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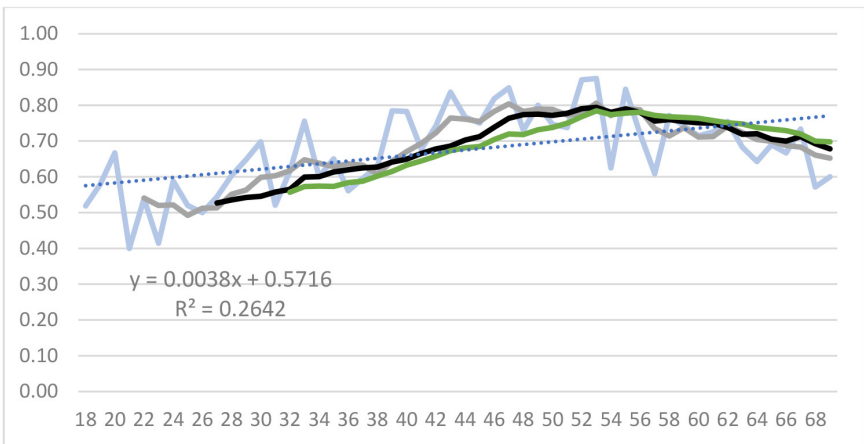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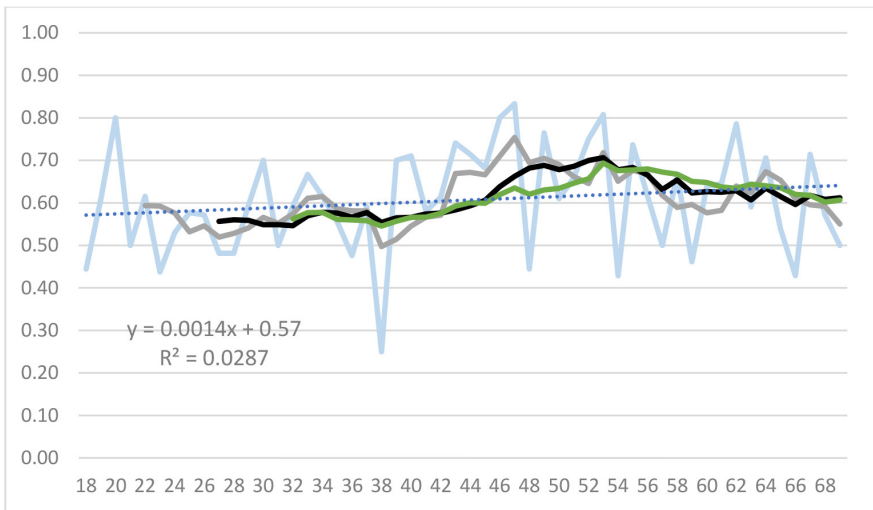


그림 1은 ‘귀하는 남북 통일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로 결정하신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는 연령별 평균값, 연령별 평균값의 5이동평균, 10이동평균, 15이동평균을 나타낸다.¹⁰⁾ 그림 1의 10이동평균을 기준으로, 앞서 기술한 추론과 같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통일 찬성 비율이 상승하다가 53세 전후 즉, 44~53세층에서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6의 결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통일 찬성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여성과 남성의 연령대 통일 찬성 비율을 구분하여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 3과 같다.

그림 2. 여성의 연령별 통일 찬성 비율



10) 그림 1의 각 곡선은 좌측 끝이 어느 연령에서 시작되는지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된 각 연령 평균의 10이동 평균의 추이는 27세부터 그래프가 시작된다.

그림 3. 남성의 연령별 통일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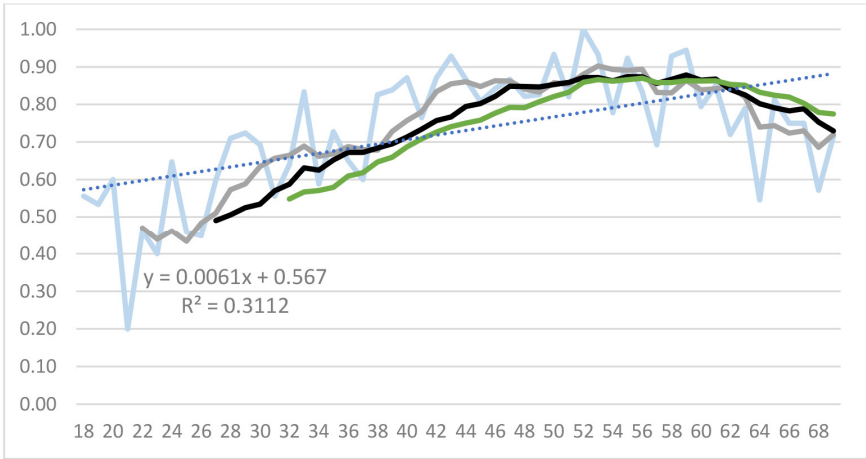


그림 1~3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관찰된다. 10이동평균값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53세 전후에서 정점을 보이지만, 전체 추세에 있어 남성의 증감 경향이 여성에 비해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의 추세선 기울기 기준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통일 필요성 증대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3배로 통일 찬성에 대한 연령별 의식 차이는 남성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분석 결과 토론

앞 절의 표 6, 7과 그림 1~3의 검토를 통해 연구 가설 ‘통일 찬성 비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상승하다가 일정 연령대 이후 그 추세가 현저히 둔화하거나 찬성 비율이 감소할 것이다.’는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가설 검증과정에서 평균적인 통일 찬성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며, 통일 찬성 비율의 연령대별 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10이동평균값 기준 53세에서 가장 높은 통일 찬성 비율을 보였으며, 최슬기 외(2019)에 의하면 1964년생 이전 세대는 보수성향이며 1965~1974년생이 비보수적인 정치행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해 찬성 의견을 가지는 것과 스스로 진보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해서 연령대별, 성별 통일 찬성 비율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론하기 위해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검토하였다. 다음 그림 4~6은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한 1,541명(68.7%)의 찬성 이유 중 상위 4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¹¹⁾ 통일 찬성 이유를 묻는 문항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선택지로 구성되었다. ‘귀하가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니까, (2) 잘 모르겠지만 해야 할 것 같아서, (3)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 위해서, (4) 한국과 북한 양측이 가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5) 한국의 외교·국방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6) 한국의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7) 기타’¹²⁾.

11) 찬성 및 반대이유를 나타내는 그림 4~9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3개 항목은 생략하고 상위 4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12) 통일 찬성 이유의 선택지 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단위 %). 전체 (1)15, (2)2, (3)5, (4)22, (5)31, (6)25, (7)1. 여성의 선택지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여성 (1)16, (2)2, (3)5, (4)23, (5)33, (6)21, (7)1. 남성의 선택지 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성 (1)14, (2)1, (3)5, (4)22, (5)29, (6)28, (7)1.

그림 4. 통일 찬성 이유 100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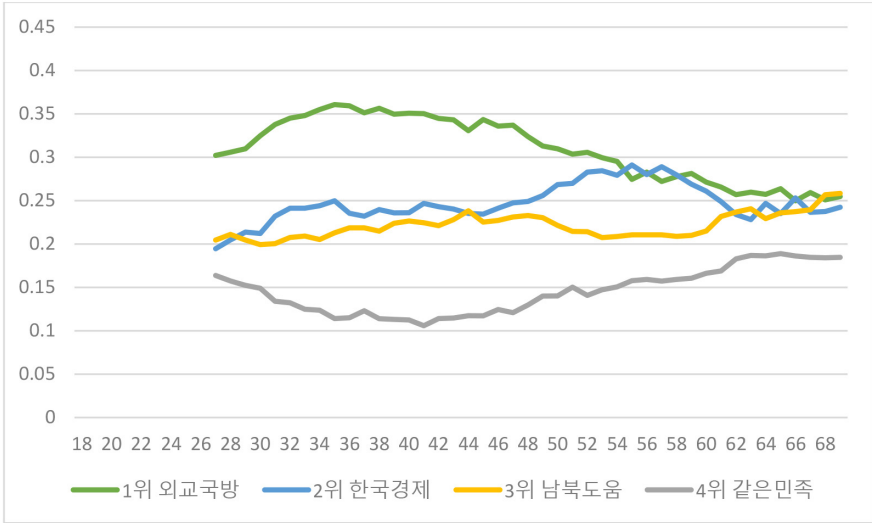


그림 5. 여성 통일 찬성 이유 100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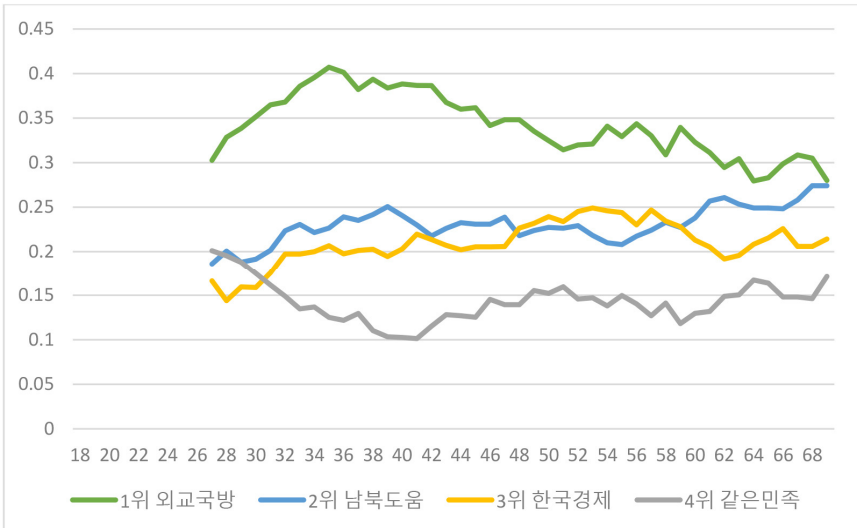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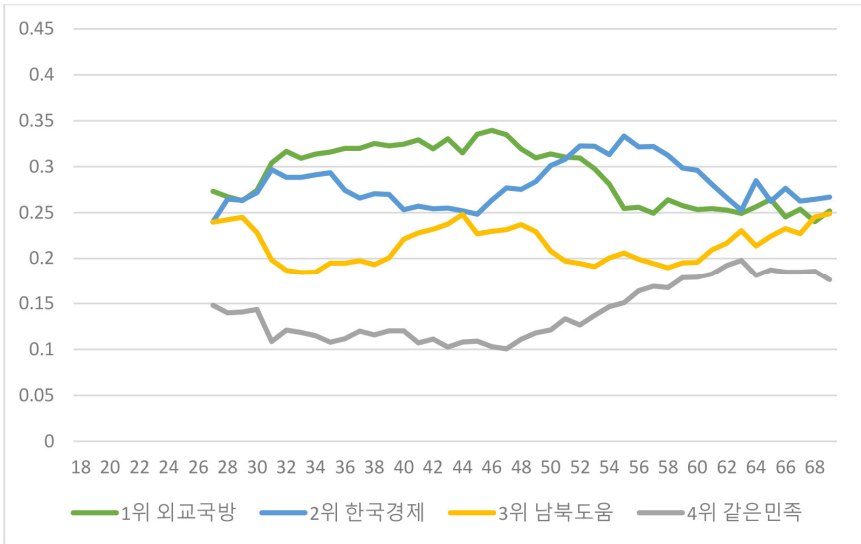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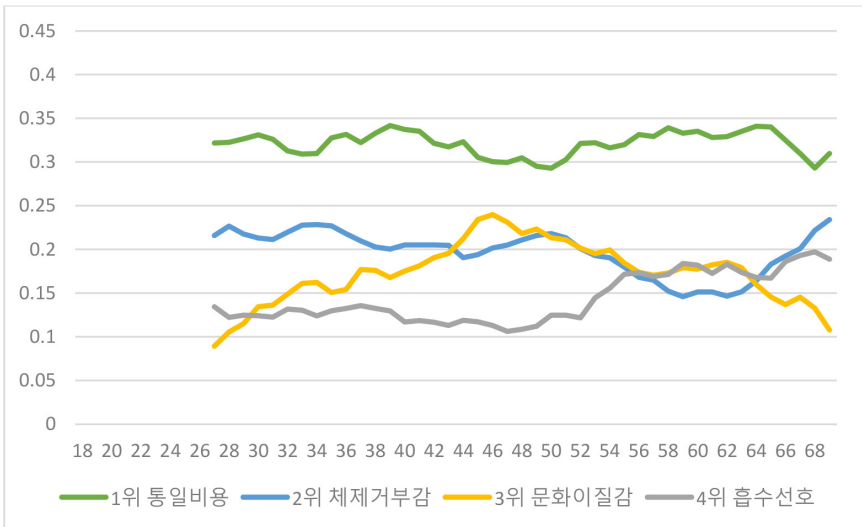
그림 6. 남성 통일 찬성 이유 100이동평균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로 전연령대에서 ‘한국의 외교·국방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선택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여성은 40대 이후, 남성은 50대 이후 선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선택지는 전체와 남성에서 2위이며 특히 남성 40대 이상에서는 1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양측이 가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선택지는 여성 40대에서 높은 비율의 선택을 받아 2위를 점하고 있다.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니까’ 선택지는 남성에서 장년층에 접어들면서 선택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눈에 띈다. 선택지 간 선택 비율 격차가 특히 여성 청년층에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 그림 7~9는 통일에 반대한다고 답한 702명(31.3%)의 반대 이유 상위 4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통일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선택지로 구성되었다. ‘귀하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통일에 드는 비용 문제, (2) 문화적 이질감, (3)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 (4) 종합적으로 통일은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 (5) 막연한 거부감, (6)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이라면 찬성, (7) 기타’¹³⁾.

그림 7. 통일 반대 이유 100이동평균



13) 통일 반대 이유의 선택지 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단위 %). 전체 (1)32, (2)16, (3)21, (4)12, (5)3, (6)14, (7)2. 여성의 선택지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여성 (1)30, (2)17, (3)22, (4)12, (5)3, (6)14, (7)1. 남성의 선택지 별 선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남성 (1)34, (2)15, (3)19, (4)13, (5)3, (6)15, (7)2.

그림 8. 여성 통일 반대 이유 100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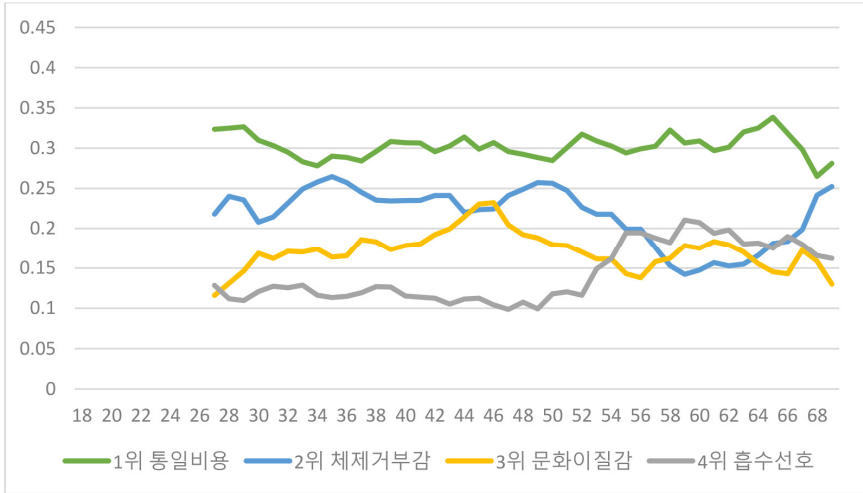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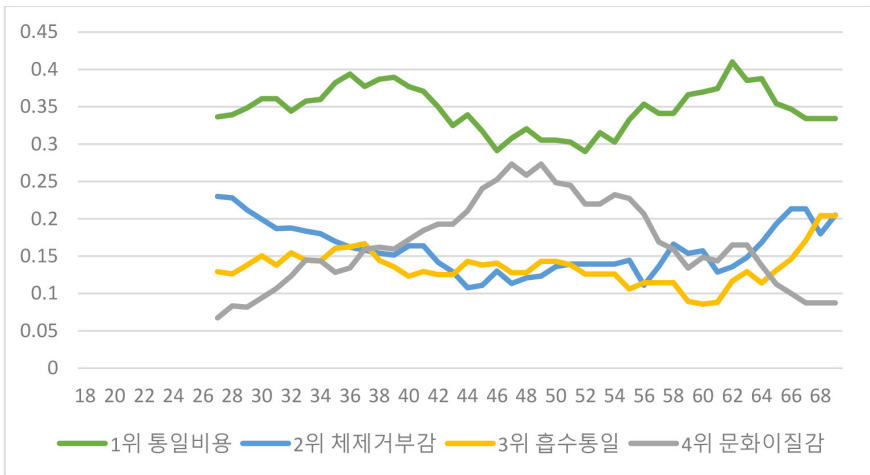


그림 9. 남성 통일 반대 이유 100이동평균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통일에 드는 비용문제’ 선택지가 전연령대에서 현저한 차이로 1위를 점하며, 남성 30대 후반~40대 중반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2위인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은 여성 30대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3위인 ‘문화적 이질감’ 선택지는 특히 남성 30, 40대에서 높은 선택 비율을 보이며, 4위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라면 찬성’ 선택지는 여성 40대 이상, 남성 50대 이상에서 선택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이유 중에서 그림 9의 남성 청년층과 장년층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통일비용’ 선택지가 1위인 점이 특히 눈에 띄며, 이 그래프의 형태는 생애주기 적자구조 그래프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28세 이전과 59세 이후는 적자를 기록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양극화 현상은 취업난 및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30대 및 중도퇴직과 정년퇴직 등에 의한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50대 이상 연령층에 특히 통일 비용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V. 결론

본 논문은 통일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을 바탕으로 수도권 시민의 통일 의식에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통일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지만 44세~53세 층에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후 점차 감소하는 것이 통계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모형 분석에서 44~53세층은 참조집단인 24~33세층에 비해 승산이 2.5배 이상 높았으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산은 0.56배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 찬성률의 연령대별 차이는 남성에서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선 기울기 기준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통일 찬성률 증가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4.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모형 및 이동평균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통일 찬성 비율은 연령과 단순 증가 관계가 아님을 보였으며, 통일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와 가장 낮은 연령대를 추정하였다. 또한 전체 데이터의 연령대별 통일 찬성 비율의 차이는 남성의 현저한 연령대별 통일 찬성 비율의 차이가 배경에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유효 표본 수를 늘려 모집단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대규모 횡단면 분석의 의의를 환기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한반도의 통일을 둘러싼 남남 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략 방향성 제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경제양극화 진행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청년층과 고령층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필요한 예상 비용과 예상 편익이 통일의 실현 과정에서의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부가 효과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북한의 문화 및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특히 청년층 민간 교류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한국 시민의 의식 편차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에 일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고 2020년 한 해 자료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년간에 걸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배반투표와 사회계층. *한국정당학 회보*, 12(3): 5-28.
- 강원택·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 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5-240.
- 고상두. (2010).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28(2): 269-288.
- 구본상·최준영. (2019). 통일의식에서의 영호남 지역 차에 대한 경험적 분석. *분쟁해결연구*, 17(2): 107-135.
- 김병조. (2009).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 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1(2): 63-102.
- 김병조. (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 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3-41.
- 김석호·김영원. (2017).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한국의 사회 동향*, 통계개발원.
- 김학재. (2020). ‘통합’의 다양한 차원: 역사·비교지역주의적 관점, *통일 과 평화*, 12(1): 179-234.
- 김학재·강채연·김범수·김병로·김희정·이성우·임경훈·최규빈. (2019).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희삼·최슬기·김석호·이윤석·이영욱·강우진·김혜원·송인호·전병목· 김순희·이상협. (2015).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연구보고서 2015-05,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정·김선. (2018).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통일의식조사를 중 심으로. *인문사회21*, 9(6): 1643-1654.
- 백대현·이재완. (2015).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 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2): 205-224.
- 변종현. (2012).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21(1): 157-186.

- 우경봉. (2020). 정당 지지에 대한 세대별 차이 고찰. *분석과 대안* 4(2): 103-132.
- 우경봉. (2021). 연령대별 통일 찬성, 반대 비율 고찰. *한국사회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사회경제학회.
- 우경봉. (2022). 통일 의식의 양극화. *한국사회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사회경제학회.
-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014(봄): 167-206.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 *의정연구*, 19(3): 39-83.
- 이성우. (2013).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통일과 평화*, 5(1): 115-153.
- 장민수·김준석. (2015).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 인식에의 영향. *한국정치연구*, 24(1): 111-139.
- 임경훈. (2019). 통일의식조사, 2019[데이터 세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자료제공기관], 2020-09-23, A1-2019-0027, V1.0, <http://hdl.handle.net/20.500.12236/24142>
- 임홍택. (2018). *90년생이 온다*. whale books.
- 정동준. (2016).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5): 131-161.
- 정은미. (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5(2): 74-104.
- 조민. (2003). 통일정책과 국민통합: 보혁갈등을 넘어. *통일정책연구*, 12(2): 1-40.
-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시사인북.
- 최슬기·이운석·김석호. (2019). 세대별로 투표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달라지는가?. *한국사회*, 20(2): 103-130.
- 통계청. (2020). *2017 국민이전계정*.